사치하지 말고 기뻐하라

(아모스 6:1~14)

1.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2.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3.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치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치하지 말고 기뻐하라'

대만의 역사학자 우런수(巫仁恕)의 "사치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 사대부문화의 사치풍조를 여러 가지 학문적 측면에서 바라본 책입니다.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의 측면에서 당시를 분석하고 통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명나라 초기만 해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것은 소수 사대부의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 후기에 경제력을 획득한 상인들이 가마를 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의복 가구 음식에 이르기까지 사대부 계급의 소비를 모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대부들은 계층적 특권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상인층의 사대부 문화 진입을 막으려고 검소의 미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소의 미덕을 아무리 주장해봐야 상인 계급의 약진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귀족과 지주들이 누리던 소비생활을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흉내 내게 됩니다. 이때에 영국에서는 중국과는 반대로 사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은 물자를 공급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유럽과 중국이 걸어온 길이 이때에 크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해 아래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자산의 분배와 함께 성장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과 같은 소비경향을 지향하고자 할 때에 부자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전히 격차는 존재할지언정 물자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력을 상승시킬 때에 민주주의 또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층 간의 투쟁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먹는 햄버거를 일용직 노동자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될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앞서 드린 말씀과 동일하게 백성들이 지도자층의 사치풍조를 모방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조건만 구비된다면 지도자층이 누리는 사치를 따라가는 풍조를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치풍조가 나타남으로 인해 선민들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치풍조는 선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치와 복음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선민에게 사치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민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사치에 대한 불가능함입니다. 복음의 이론이 사치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쁨의 소리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증거로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사치와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이 사치하게 하는 욕망의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사치를 한자로 보면 사치할 사(奢), 사치할 치(侈)로써 같은 뜻의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사치할 사(奢)는 큰 대(大) 아래에 놈 자(者)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것을 이고 다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사치할 치(侈)는 사람 인(亻)에 많을 다(多)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이 짊어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이 그러합니다. 좀 더 확장시켜보자면 취미나 여가 활동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의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치란 이러한 요소를 보다 크고 다양하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요소에 보다 큰 지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비싼 집, 이왕이면 더 비싼 식사, 이왕이면 더 비싼 옷을 입고자합니다. 이러한 사치는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 백성들도 그러한 사치풍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선민에게서 복음의 요소가 제거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비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곧 신명기 6장 5절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랑은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갖게 됨으로써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진짜 기쁨이신 하나님을 가지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그 하나님을 가져서 기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을 체감하게 될 때에 삶에서 선민들이 모방하고자 했던 사치풍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치의 문제는 기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롤렉스시계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시계를 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의 이론에서는 롤렉스시계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 마음이 참여하지 않는 한 온전한 기쁨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론을 알고 있다면 사치를 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가짜인 것을 알기에 사치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복음의 이론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는 것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복음의 이론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론과 체감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소망입니다.
다만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획득 가능한 재화나 지식적 요소가 아니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복음 즉 기쁨의 이론을 놓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삶은 사치지향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치에는 과함과 모자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치와 기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치는 간단히 말해 과도하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은 항상 모자랍니다. 사치를 부리면 부릴수록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은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과도하게 지불한 것만큼 기대감 또한 커지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제시하는 기쁨의 이론과 실제는 사치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실제를 체감하지 못한 채 이론만 알더라도 사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근거하여 자문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사고 더 비싼 것을 먹으면 정말로 기쁨이 생길까?"라는 질문에 대해 복음이 주는 답은 언제나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과의 인격적 대면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갖도록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십자가 생활화에 적용해보자면 사치의 성향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 수천억을 호가하는 예배당을 가진 초대형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아쉽게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처럼 어리석고 촌스럽고 애처롭고 딱하고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보자면 교회 바닥에 이태리 산 대리석이 깔린 것이야 말로 목불인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화려한 외형이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론에 대한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치를 부려서 지은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화려한 예배당은 조잡한 기쁨의 추구일 뿐입니다. 조잡하다는 것은 없는 돈으로 궁색하게 만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처럼 조잡한 것은 달리 없습니다. 조잡할 뿐만 아니라 근심스럽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사치스러움으로 기쁨을 찾으려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하여 사느냐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흩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역량은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임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치스러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예배당 건물이 없을지라도 어디서든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일 장소가 필요하여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튼튼하게만 지으면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세련된 모습의 예배당일 것입니다.
가톨릭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바티칸 성당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온갖 귀금속과 예술 작품으로 치장된 베드로 성당의 화려함은 대중의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이 비판하고 있는 백성들을 현혹하는 지도자층의 사치풍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당의 화려함에 현혹된 교인들의 상실된 영혼의 무게 값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것은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신교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그러한 생각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 놓으면 교인들이 온다”는 발상은 천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겁 없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교인들을 대해온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감

당해야 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지탄의 대상은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여겨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건물은 많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되찾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지도자들이 사치를 통해 세속적 기쁨에 몰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백 몇 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언젠가 화려한 예배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 찾아오는 교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의 일들이 마냥 잘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복음의 이론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대체 사치의 경계가 어디부터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검소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기껏 사치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번에는 검소도 미덕이 아니라니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사치를 기쁨으로 여겨 빠지지도 말고 반대로 검소를 숭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또 그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통해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소라는 덕목을 지키겠다고 애쓰면 율법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치가 아닌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구별된 직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치와 검소는 외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출이라면 합당합니다. 반대로 사치풍조는 물론이고 설령 검소하게 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기쁨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죄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함을 통해 생겨나는 기쁨을 통해 사치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편까지 오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이론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지출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 사치지향성을 띄려는 우리의 죄악 된 본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삼위일체의 관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비롯된 지출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참된 복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